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우크라이나 전쟁 속 튀르키예의 ‘팔색조’ 외교

조용성

박사과정, 러시아·CIS 정치 전공
mirinae2929@gmail.com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역할

전쟁 발발 이후 튀르키예의 현란한 팔색조 외교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끈다. 강대국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이해 당사국들과 고도의 수싸움과 기싸움을 통해 중요한 국익들을 관철시키고 있어서 그렇다. 양카라는 나토와의 동맹을 자국 안보정책의 주춧돌로 여기지만 다른 한편 독자외교를 통해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선 튀르키예는 기본적으로 나토회원국으로서 러시아의 재팽창 야망 봉쇄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남부 전선의 헤르손을 비롯한 흑해 연안 지역이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하지만 4월 14일 모스크바함 피침을 계기로 오데사가 함락을 면하게 되었다. 또 격전지 중 하나였던 흑해의 조미이니 섬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오데사항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숨통을

트게 되었다. 뒤집어 해석하면 러시아군이 흑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하지 못한 것이다.



1 흑해 보스포루스 & 다르다넬스 해협(자료: <https://greekcitytimes.com/2022/04/04/ukraine-alternative-world-order/>)

러시아 흑해 함대의 활동 약화는 튀르키예가 흑해에서 에게해로 넘어가는 두 개의 해협(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에 대한 외국 군함의 통행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외국 군함의 해협 통행과 함선의 배수량을 제한하는 권리를 튀르키예에 부여한 1936년의 ‘해협 통과에 관한 몽트뢰(Montreux) 협정’에 근거한다. 이 협정은 오늘날 튀르키예와 흑해 연안의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안보 불안
을 일정 수준 경감시켜주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는 자국산 무인기 바이락타르 (Bayraktar) 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군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실제로 전쟁 초기 바이락타르는 러시아 탱크를 잡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침공군에 반격을 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미 바이락타르 무인기는 지난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벌어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도 그 성능과 위력을 입증한 바 있다.

튀르키예의 독자외교

이와 더불어 튀르키예는 나토 확장에 어깃장을 놓는 방식으로 자국 안보이익을 주도적으로 확보했다. 나토 회원국 확대의 만장일치 제도를 활용해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 반대급부를 요구함으로써 안보현안을 해결한 것이다. 튀르키예는 자국이 테러조직으로 간주한 쿠르드노동자당(PKK)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동의했다. 동시에 미국에게도 러시아산 S-400 미사일 구매로 중단되었던 F16 전투기 추가 구매 및 장비 개량 지원도 요구해 해결을 앞두고 있다.



그림 2 실전투입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자료: <https://informnapalm.org/en/ukraine-used-bayraktar-tb2-strike-drone-in-war-zone-for-the-first-time-video/>)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점은 나토국가로서의 튀르키예의 행보가 대러관계의 악화와

적대 표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내 경제위기, 우크라이나산과 러시아산 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기술점검에도 터키 스트림 파이프는 다시 공급을 재개한 바 있고, 우크라이나 측이 요청한 러시아 선박 곡물 압류 또한 사실상 실패하며 우크라이나 측이 실망의 표현을 내비친 적도 있었다.

사실 튀르키예는 형제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림타타르인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20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시리아에서 튀르키예 군인 30여명이 전사한 사건도 있었다. ‘튀르키예-서구 갈등 = 튀르키예-러시아 관계 증진’ 공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처럼 앙카라는 서구, 러시아 모두 갈등 현안이 있음에도 대화의 영역에서 문을 열어두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담 중재자를 튀르키예가 자처해오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 3 제5차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협상. 이스탄불, 2022년 3월 29일(자료:

<https://www.voanews.com/a/ukrainian-russian-delegations-send-positive-messages-after-istanbul-talks/6506651.html>)

튀르키예 외교정책의 시사점은?

튀르키예의 이런 자기 주도적 실용외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흔히 동맹 지도국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독자 행보를 보이는 정책은 무모한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이는 동맹국의 신뢰를 떨어뜨려, 맹주로부터 유사시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냉전’ 키워드가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 즉 커플링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권위주의와의 투쟁 및 강력한 자유주의 진영에 절대적 의존’이라는 여론몰이가 우리 사회에서 관찰된다.

외교는 통용되는 상식과 달리 “상국(國)을 정하고 섬기는 행위”가 아니다. 같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과거 냉전 시대처럼 공공재를 투입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이제 패권국에게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들 역시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국우선주의’라는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맹국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 대상국이 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중·러의 권위주의 국가와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대외적 행보 및 외교언사를 자주 표출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안보의 기본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중·러와의 정치 및 경제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러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적 지혜가 요구되는 이유다. 나토 동맹국 튀르키예의 유연한 실리외교가 그 방향성을 제공해준다.

필자 조용성은 한국외대 정외과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졸업 후, 러시아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편집인 ■ 김상경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 02-2173-2556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후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 Economic Policy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for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